

# “젊은이들 외면하는 농업, 미래 비전 보이겠다”



## 청년이 미래다

〈11〉 귀농 정경모·김소영 부부

7년여 전 고향에 내려와 토마토 농사로 정착한 정경모(38·보성군 조성면)씨와 김소영(여·37)씨 부부는 귀농을 통해 도·농격차해소와 청년실업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예비 귀농인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보성군 조성면 봉농리에서 토마토 재배와 딸기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한 해 평균 1억5000만~2억 원의 고수익을 올리는 청년농업인이다. 이 마을이 고향인 정씨는 중학교를 마친 뒤 상경했다. 이후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회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직장생활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회사 특성상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업무 탓에 지친 일상 속 스트레스는 갈수록 쌓여갔다. 고단한 삶에 회의감을 느낀 정씨는 입사한 지 4년여 만에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로 한 뒤 아내와 상의 끝에 귀농을 결심했다.

그러나 평온하고 소박한 일상을 꿈꾸며 귀농한 이들 부부에게 농촌의 현실은 쉽게 넘기 힘든 벽과 같았다. 농사에 대한 거의 무지한 수준이었고 귀농자금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전남도와 보성군, 농촌진흥청 등에서 주관하는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던 끝에 토마토 재배를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보성에서 토마토 재배를 첫 시작했는데, 마을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재배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정씨 부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재배방식·양분공급법 등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자본 등을 감안, 4628㎡(1400평)를 매입한 뒤 토마토 재배를 시작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첫 해 매출 1억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귀농한 지 첫해부터 역대 연봉 대열에 들어서는 등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이들 부부가 귀농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배작물 선택부터 재배방법, 판로개척(직거래)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한 노력 덕분이다.

**고등학교·대학…직장생활 4년  
고단했던 서울살이 접고 귀향  
자금 없고 농촌 문외한 ‘막막’  
귀농정착 프로그램은 ‘큰 힘’**



**토마토 재배·딸기 체험장 운영…연 2억원 소득**

**작물 선택·판로개척 등 노력…리스크 최소화**

**매출 1% 기부 “농촌 젊은이 잘사는 모습 보여줄 것”**



특히 농촌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재배한 작물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 직거래를 통해 저가 판매에 나서는 등 소비자와 대면접촉을 늘린 점도 주요했다. 이 같이 이들 부부의 귀농 성공정착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500명 이상의 예비 귀농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정씨는 “(제) 집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최소 하루 이상 이곳에 머무르도록 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10명 중 9명은 다음 날 바로 집을 쓴다”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귀농을 결심하신 안 된다. 귀농 전엔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한 뒤 귀농 후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큰 꿈이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외면당하는 농업에서 미래 비전을 찾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정씨는 “아내가 귀농한 뒤 순천지역 한 요리프로그램 강의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는데, (아내가) 농사 짓는다는 것을 안 참가자들이 말 쉬기를 거부했다”면서 이후 “일 할 땐 열심히, 놀 땐 고급승용차 몰고 다니면서 ‘농촌에 사는 젊은이들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구나’ 하는 말을 듣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의 미래비전은 확고하다.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농촌의 미래도 밝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연 매출의 1%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농촌 젊은이들도 고수익자이면서 기부도 하는 등 자부심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다.

또 최근 토마토 시설하우스 주변 부지 9917.3㎡(3000평)를 매입했는데, 이곳에 농촌문화를 보고 배우며 뛰놀 수 있는 농촌문화 체험장을 건립·운영할 계획이다.

정씨는 “도시에서 살면서 벼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많다. 이들 학생들에게 농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고 농업에 미래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면서 “농사는 땅을 갈 만큼 보답해준다. 열심히 제 할 일 하면서 지내면 그곳이 농촌이든, 도시든 의미가 없다는 점을 깨우쳐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정경모(오른쪽)씨와 김소영씨가 보성군 조성면 봉농리 자신들이 운영하는 토마토 시설재배 하우스에서 직접 수확한 토마토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귀농 전 3~5년·귀농 후 2~3년 ‘열공하라’

소박하게 시작하고 막걸리 한 통으로 이웃과 친해져라

### 귀농 꿀팁

인생 황혼기에 시골에 살면서 농사나 짓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출발했다면 꿈을 깨라. 사전준비 없는 문지마 귀농 귀촌은 짝박 망하기 십상이다. 귀농 귀촌으로 인생 2모작을 준비하려는 초보들에게 권하는 고수의 한 수는 이렇다.  
◇현장을 밟고 공부부터 해라=도시와

농촌은 환경, 생활방식 등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수다. 준비 단계부터 차근차근 해야 할 공부가 수두룩하다. 농어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농어촌에서 살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배우야 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만큼 사전 준비와 결심 단계까지 꼼꼼한 공부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귀농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3~5년, 귀농 후에도 적응하는데 2~3년이 걸린다는 생각으로 배워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박 노리지 말고 소박하게 시작하라=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것은 공짜로 고달프고 힘든 삶이다. 도시처럼 일한 만큼 금방 수입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아니다. 논밭에 작물을 심고 피땀을 흘리고 공을 들여야 작물이 서서히 자란다. 귀농 직후 초기에는 아예 수입은 포기해야 한다며 실패

의 쓴잔을 마셔본 선배들은 훈수한다. 농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일단 부딪혀 보자는 막무가내식 귀농은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게 귀농 선배들의 조언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농업부문 평균 소득은 3.3㎡당 논 농사는 2500원, 밭 농사는 3500원, 과수는 1만원이다. 농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이면 망한다=도시보다 훨씬 저렴한 땅값만 믿고 넓은 땅부터 덜렁 사고 새집 짓는 생각부터 한다면 오산이다. 농사도 비싼 농기계부터 사서 시작한다면 위험하다. 처음부터 귀농·귀촌을 위한 무리한 투자는 화를 자초한다.

마치 부동산 투자하듯 땅을 사려고 덤벼들면 인생 이모작은 시작부터 파탄이 날 수 있다고 고수들은 입을 모은다. 작은 집에서 내 채급에 맞는 농사를 조금씩 시작해야 첫걸음부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웃과 어울리고 가족은 똥차야=도시 생활에 익숙하던 귀농·귀촌인은 농촌 원주민과는 아예 생활 습관이나 문화·정서에서 큰 거리감을 느낀다. 귀농 준비가 부족하고 귀농 마을 주민과 유대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이질감이 깊어질수록 귀농귀촌인은 적응에 힘들어하고 주민은 배척감만 생긴다.  
막걸리 한 통으로도 주민 속에 파고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 일

체감 형성이다. 귀농·귀촌 전에 충분히 고감하고 마음을 맞춰야 한다. 가족이 함께 귀촌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다.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농사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작물 종류도 여러가지인 것처럼 농사도 다양하다. 특히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좋다고 고수들은 조언했다. 부추의 경우 있어서 꼼꼼하게 작업해야 하는데 성격이 세심한 사람 들만 할 수 있다. 음식에도 공감이 있듯이 농사에도 자기 몸에 맞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부터 조금씩 시험하듯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